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419

JCCT 2020-2-51

사범대학 음악교육 전공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연구

A Study of Educational Satisfaction for Music Education Majors

박영주*

Young Joo Park*

요약 본 연구는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범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대학 음악교육 전공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의 성별, 학년, 진로희망, 학생들의 개별 노력에 따라 교육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범대학은 미래의 인재를 가르치는 교사 양성 기관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대학들이 훌륭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주요어 : 사범대학, 음악교육 전공, 교육만족도, 예비음악교사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music education and provided suggestions to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First of all, 152 students majoring in music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 were surveyed. Second, the SPSS 22 for Windows program was used to conduct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cross-analysis. The result wa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gender, school year, career-hopping professions, and individual efforts of students. College of Education has a huge impact on society as an institution that trains pre-service teachers who will teach future student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hope that the college of education will serve as fundamental institutes for the training of pre-service teachers.

Key words : college of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s, educational satisfaction, pre-service teacher

1. 서론

학생들은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 인성 등 21세기가 주목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다. 특히 학교 음악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교과를 통해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며, 생애에 걸쳐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악교사는 음악교육은 물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사는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음악대학의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 전공과

*정회원,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조교수
접수일: 2019년 12월 16일, 수정완료일: 2019년 12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01월 10일

Received: December 16, 2019 / Revised: December 31, 2019

Accepted: January 10, 2020

*Corresponding Author: yj9097@gmail.com

Dept. of Music Education, Kyungnam Univ, Korea

정을 통해 양성된다[2]. 특히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범대학인 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10개의 사범대학으로 운영되었었지만[1], 2016년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가 폐지되면서[3], 현재 전국 9개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음악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질 높은 교원양성기관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5주기 평가는 미래형 교사의 자질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여부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한국의 미래사회가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중 인구절벽으로 인한 교사수급에 대한 대응 방안의 성격도 띄고 있으며[4][5],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음악교사 양성기관의 수 혹은 양성기관의 학생 정원수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6][7].

예비 음악교사로서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음악전공자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있다. 또한 졸업 시 교육과정 이수조건을 충족하여 받게 되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전공’ 자격증과 함께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한편, 이는 대학교육의 질에 따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전공’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 [1][8][9], 예비 음악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연구하고 있다[10]. 하지만,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주중심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만족도 연구 [11][12]와 매우 상이한 모습이다.

학생들이 음악대학이 아닌 사범대학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는 ‘교사’ 라는 직업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사로서 자질과 역량을 충분하게 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교육 대상인 학생의 특징에 따라 만족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생들의 특징에 따른 교육만족도 연구는 미래의 사범대학 음

악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자질과 역량을 잘 기르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사범대학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의 일반적인 교육만족도를 살펴보기 보다는 성별, 학년별, 진로희망별 및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래 사회의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19년 7월 한 달간 총 177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를 배포하였고, 학생들은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배포된 설문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설문을 제외한 152명의 설문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5명(16.4%), 여성이 127명(83.6%)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38명(25%), 2학년은 32명(21.1%), 3학년은 39명(25.7%), 4학년은 43명(28.3%)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2)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25	16.4
	여자	127	83.6
학년	1학년	38	25.0
	2학년	32	21.1
	3학년	39	25.7
	4학년	43	28.3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문항, 취업의 종류에 대한 문항, 학과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개인의 개별 노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이 사용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통계분석을 위해 객관식으로 제시하거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연구방법 및 제한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행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후검정으로 LSD(least significance difference)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특성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9개의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중 전체 학생의 규모가 가장 큰 대학으로 제한하여 조사했다. 따라서 전국 9개의 사범대학 중 임의의 한 곳을 선정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만족도

학생들은 학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학과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내활동도 활발하게 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 2>와 같이 성별에 따라 학과에 대한 이미지, 학과의 발전 가능성 및 학내활동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325, p<.05$). 따라서 남학생들($M=4.68, SD=.627$)이 여학생들($M=4.28, SD=.823$)보다 교원양성기관으로서 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았다. 또한 남학생들($M=4.60, SD=.577$)이 여학생들

($M=4.31, SD=.802$)보다 학과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였고($t=1.738, p<.1$), 남학생들($M=4.16, SD=.800$)이 여학생들($M=3.74, SD=1.063$)보다 학내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t=1.738, p<.1$).

표 2. 성별에 따른 만족도
 Table 2. Satisfaction based on gender

항목	남학생(N=25)		여학생(N=127)		T	p
	M	SD	M	SD		
학과 이미지	4.68	.627	4.28	.823	2.325	.021*
발전 가능성	4.60	.577	4.31	.802	1.738	.084†
학내 활동	4.16	.800	3.74	1.063	1.871	.063†

† p <.1, *p <.05

2. 학년에 따른 졸업 후 진로희망

학생들의 학년과 졸업 후 진로 간 연관성은 .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15.490, p<.05$). 특히 <표 3>과 같이 모든 학년에서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1학년, 2학년의 경우 졸업 후 진로를 취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표 3. 학년에 따른 졸업 후 진로희망
 Table 3. Characteristics of career hope according to school year

구분		학년				총계	χ^2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취업	N	27	26	24	24	101	15.490	.017*
	%	71.1	81.3	61.5	55.8	66.4		
취업 준비	N	10	5	12	9	36		
	%	26.3	15.6	30.8	20.9	23.7		
기타	N	1	1	3	10	15		
	%	2.6	3.1	7.7	23.3	9.9		
총계	N	38	32	39	43	152		
	%	100	100	100	100	100		

*p <.05

졸업 후 취업이라고 응답한 학생 101명 중 진로희망 분야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00명을 대상으로 진로희망 시 선택하고자하는 직업에 대해 '교사'와 '비교사'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표 4>와 같이 졸업 후 '교사'를 직

업으로 희망하는 학생은 총 84명(84%)이며, 이에 반해 ‘비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 16명(16%)으로 나타났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이 교사를 진로로 희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진로를 교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chi^2=9.301, p<.05$).

표 4. 학년에 따른 진로희망 분야에 대한 특징
Table 4. Characteristics of career hope filed according to school year

구분	학년				총계	χ^2	p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사	N	26	22	21	15	84	9.301 .026*
	%	96.3	84.6	87.5	65.2	84	
비교사	N	1	4	3	8	16	
	%	3.7	15.4	12.5	34.8	16	
총계	N	27	26	24	23	100	
	%	100	100	100	100	100	

*p <.05

3. 희망직업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표 5>는 희망하는 직업으로 ‘교사’를 선택했던 학생들과 ‘비교사’를 선택했던 학생들에 따른 학과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학과만족도에 보통이상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희망 직업에 따라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M=4.19, SD= .750)에 비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M=3.75, SD= .903)이 학과 실험용 기자재, 강의실 환경 등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t=3.309, p<.1).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혹은 학생들의 전시회나 공연 등에 대해 지원을 묻는 학과지원에 대해서도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M=3.99, SD= .988)이 비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M=4.50, SD= .632) 보다 학과지원에 있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t=3.968, p<.05).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자들의 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물론 비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교수자의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M=4.46, SD= .702)이 비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학생들(M=4.81, SD= .403)보다 교수자의 노력에

대한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t=3.686, p<.1).

표 5. 진로희망 분야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Table 5. Satisfaction with students based on their career hope field (N=100)

항목	교사(N=84)		비교사(N=16)		T	p
	M	SD	M	SD		
교육 환경	3.75	.903	4.19	.750	3.309	.072*
학과 지원	3.99	.988	4.50	.632	3.968	.049*
교수자 노력	4.46	.702	4.81	.403	3.686	.058*

† p <.1, *p <.05

4. 학생들의 개별 노력에 따른 교육만족도

예비 음악교사로서 학생들은 학과 수업 외에도 많은 활동[13](외국어(학습), 자격증, 연주 오디션, 비교과 활동, 봉사, 헌혈 등)을 학내에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각 활동에 대한 개별의 노력정도를 설문하였다. 이 중 교육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외국어 능력의 정도와 자격증에 관한 항목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능력에 따른 교육만족도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음악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글로벌한 미래 사회를 위해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마다 외국어 능력 신장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A대학에서는 학생들은 1년 동안 교양필수 과목으로 외국어를 수강하고 있었다.

설문 결과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의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교육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M=3.11, SD=1.453)이 외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M=3.94, SD=0.9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교육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F=2.600, p<.1).

표 6. 외국어 능력에 따른 교육만족도

Table 6. Education satisfaction based on foreign language ability

(N=152)					
외국어 능력	N	M	SD	F/LSD	P
상(a)	9	3.11	1.453	2.600 c>a	.078*
중(b)	80	3.79	1.040		
하(c)	63	3.94	.931		

† p <.1

2) 자격증 개수에 따른 교육만족도

사범대학 학생들은 중등교사 임용고사를 응시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3급 이상에 합격해야만 한다. 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5년의 유효기간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하는 해에 이를 응시하거나, 임용합격 시기를 고려하여 응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타 대학과 달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물론 졸업 시점에 한국사능력검정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격증 개수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위해 자격증 취득 개수를 설문한 결과 총 152명 중 112명(73.7%)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5명(16.4%)의 학생들이 1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15명(9.9%)의 학생들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자격증을 1개 가지고 있는 학생들(M=4.52, SD=.586)은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M=3.98, SD=1.022)보다 학내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교육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학생들이 취득한 자격증 수에 따른 교육만족도

Table 7. Education satisfaction based on the number of certificates students have obtained

(N=152)					
자격증 수	N(%)	M	SD	F/LSD	P
없음(a)	112 (73.7%)	3.98	1.022	3.417 b>a	.035*
1개(b)	25 (16.4%)	4.52	.586		
2개이상(c)	15 (9.9%)	4.27	1.033		

*p <.05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는 사범대학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A대학의 총 152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은 학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21세기 인구 절벽 및 대학 구조조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발전가능성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음악교육 전공 학생들은 학내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과 이미지, 학과 발전 가능성, 학내활동 모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여성이 다수인 환경에서 소수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남학생들보다 만족도에서 낮게 차지한 이유에 대해 다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내활동인 경우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만족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학내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다.

둘째, 저학년일수록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따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학년일수록 취업 준비나, 기타 등 이외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입학 후 교사 이외의 것들에 관심이 생기거나 혹은 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범대학마다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진로지도에 대한 순작용으로 나타난 것인지 혹은 진로지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년에 따른 진로변화에 대한 결과를 진로지도 시 적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의 희망직업에 따라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교육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사를 희망하지 않

는 학생들보다 학과 기자재, 강의실 등 교육환경은 물론 학과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교수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즉, 교육환경과 학과지원, 교수자의 노력 등 4.0 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직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대치는 교사를 직업으로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대학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를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및 학과지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는 물론 교수자의 관심을 더욱 증대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교사로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개별 노력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외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보다 학과의 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학생들보다 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학내활동에 적극적이며, 이에 따른 교육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외국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교육만족도에서 외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야기되었는지 혹은 외국어를 학습해야하는 시간 및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활동에 의해 학내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되어 교육만족도가 낮아졌는지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한 외국어 능력과 반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1개의 자격증을 소유한 학생들이 어떠한 면에서 교육만족도를 높게 이끌어 내었는지에 대한 원인-결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사범대학 음악전공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별, 진로희망 및 개인 노력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타 사범대학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연구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별, 진로희망 및 개인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사범대학이 질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 Choi, & M. Seog, "A Historical Review of Curriculums for Music Teacher Education in the Schools of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vol.1, No.1, pp.133-148, 2016.
- [2] Ministry of Education, file:///C:/Users/USER/Downloads/2016%EA%B5%90%EC%9B%90%EC%96%91%EC%84%B1%EA%B8%B0%EA%B4%80%ED%98%84%ED%99%A9(%ED%83%91%EC%9E%AC%EB%B3%80%ED%99%98%EC%9A%A9).pdf
- [3] Chungju University, <https://www.cju.ac.kr/www/contents.do?key=4411&>
- [4] Asia Economy,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0610495820149>
- [5] Ministry of Educatio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dev=0&statusYN=C&s=moe&m=0204&opType=N&boardSeq=74057>
- [6]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https://necte.kedi.re.kr/noticeList.do>
- [7] Edaily News,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94806622452184&mediaCodeNo=257>
- [8] M. Byun, "The Changes of the Korean Music Curriculum of Music Teacher's Training College," *Korean Music Education*, vol.38, no.38, pp.139-158, 2014.
- [9] M. Jeon, & I.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Music Education in College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2009 Basic Required Course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26, no.3, pp.115-131, 2010.
- [10] J. Oh,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eaching Demonstration in Secondary Pre-Service Music Progra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1, no.1, pp.191-227, 2012.
- [11] J. Choi, "Curriculum Satisfaction between Music & Business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3, no.2, pp.139-157, 2014.
- [12] E. S. Jung, "Perception on Piano Pedagogy Curricula in Graduate Program," *Research in Music Pedagogy*, vol.0, no.16, 2015.
- [13] KU News, <http://inews.kyungnam.ac.kr/news/articleView.html?idxno=7526>